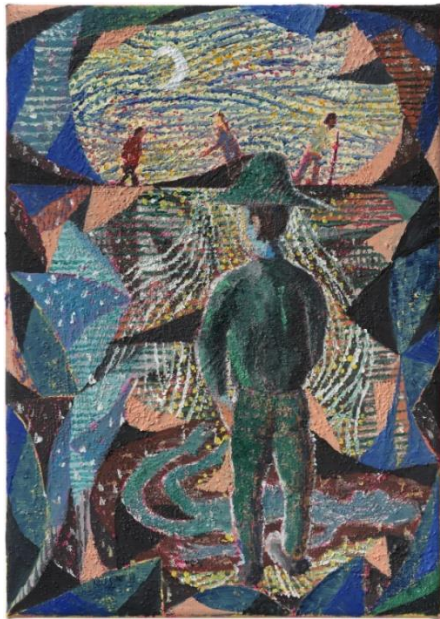


작성자: 이지선

작성일: 2019.05.21

톰 안홀트 Tom Anholt



재굴하는 남자, 2019, 린넨에 유채, 35x25 cm

© Tom Anholt

전시개요

전 시 명 : 톰 안홀트 Tom Anholt

작 가 명 : 톰 안홀트 Tom Anholt

전시기간 : 2019년 5월 22일(수) – 2019년 6월 30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청담

출 품 작 : 회화 및 평면 작업 18점

담당 및 문의

이지선 jen.lee@hakgojae.com

+822-3448-4575~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90321-20190505 톰 안홀트 展'

1. 전시개요

학교재청담은 2019년 5월 22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톰 안홀트(Tom Anholt, b. 1987, 영국 바스)** 개인전 《**톰 안홀트 (Tom Anholt)**》를 연다. 현재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영국 작가 톰 안홀트는 동시대 유럽 회화를 대표하는 젊은 작가다. 작가는 독일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모더니즘 미술사와 작가의 가족사를 한 화면에 중첩시키는 작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학교재청담 전시는 톰 안홀트의 아시아 최초 전시이다. 작가가 최근 완성한 크고 작은 회화와 드로잉 등 총 1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톰 안홀트의 작업은 마티스(Henri Matisse), 세잔(Paul Cézanne), 피카소(Pablo Picasso), 그리고 샤갈(Marc Chagall) 등 모더니즘 계열의 손꼽히는 작가들의 영향과 서아시아 삽화의 한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장르인 '페르시아인 미니어처'의 특징을 융합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는 서구 문예의 정점인 모더니즘과 이슬람 문화의 요소를 한 화면에 조화시킨다. 미술사와 가족사 등 모든 종류의 역사에서 작업의 영감을 얻으며, 문제적인(problematic) 작업을 추구한다. 자신의 작업 과정이 열정과 두려움, 그리고 영감을 주는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공을 영원히 쫓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2. 작업세계

작가로서 독자적인 표현 방법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추구될 수 있을까? 안홀트는 미술사와 자신의 가족사 연구에서 그 해답을 탐구한다. 그는 열네 살 때 런던 테이트 브리튼에서 열린 막스 베크만(Max Beckmann)의 전시를 본 후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후 매일 화실에서 작업을 했으며 졸업 후에는 베를린에 정착해 피카소와 마티스, 세잔은 물론이고 샤갈과 독일 표현주의, 청기사파 등 유럽의 모더니즘 작가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화와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서아시아의 페르시아인 미니어처도 작업 세계로 끌어들였다. 이는 아일랜드계 어머니와 페르시아계 유대인 조상을 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작가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1. 모더니즘의 영향

툼 안홀트의 작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큐비즘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화면 구성이다. 그러나 안홀트의 작업은 다시점(多視點)을 적용하고 사물과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환원해 평면 위에 재구축하고자 했던 큐비즘과는 차이가 있다. 안홀트의 회화는 작가의 현실과 상상 속 이야기, 인물과 풍경, 형상과 추상적 패턴이 뒤섞여 있다. 영화적 장치로부터 화면구성에 큰 영감을 받았다. 안홀트는 회화 속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한 화면에 담는다. 그리고 회화 속 인물들을 통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유도한다. 안홀트의 회화는 한 캔버스에 하나 혹은 여러 편의 이야기가 근경과 원경, 그리고 줌인(zoom-in) 장면이 모인 한 편의 영상과도 같다.

툼 안홀트는 큐비즘의 대가인 피카소의 "제약은 곧 창조가 된다(With constraint comes creation)"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최근 안홀트가 창조를 위해 스스로에게 건 '제약'은 색감이다. 하나의 이야기 속 여러 장면, 혹은 여러 이야기를 한 화면에 엮는 그는 전체 화면 구성을 위해 최근작으로 올수록 제한된 수의 색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은 모두 밝은 오렌지색으로 밑칠을 한 뒤 그 위에 건조한 필치로 유채를 올린 것이다. 안홀트는

이번 전시에 출품한 신작 한 점당 세 가지 이하의 톤을 썼다. 작품에 여러 가지 장면이 한 화면에 중첩되어 있음에도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유다.

현실과 환상을 한 화면에 다룸으로써 몽환적이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띄는 안홀트의 작업에는 초현실주의와 샤갈의 영향도 엿보인다. 또,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는 색감 사용 및 작가의 개인적인 관점 등은 독일 표현주의와도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현재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업하는 안홀트는 “베를린에서 지내며 독일 표현주의의 복권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안홀트는 큐비즘과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등 유럽 모더니즘을 복합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동시대 시각 경험을 통해 재해석했다. 작가는 “회화가는 수천 년의 역사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누적된 모든 종류의 역사는 나의 작업의 레퍼런스가 된다”고도 하였다.

2. 페르시아안 미니어처

안홀트의 작품에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화면 곳곳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기하학적 패턴들이다. 먼저, 안홀트의 회화에는 작품마다 서너 명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특히 관람객을 등지고 있는 인물들은 원경을 주시하는데, 이는 관람객들을 작품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또, 화면 곳곳을 채우고 있는 기하학적 도형과 패턴은 캔버스에 추상성과 장식성을 더한다. 이는 서아시아의 삽화 장르 페르시아안 미니어처의 영향이다. 작가는 자신이 이 장르에 주목하는 이유가 가족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안홀트는 자신의 아버지 쪽 혈통을 설명하며, “잃어버린 퍼즐을 찾은 기분”이라고 하였다.

안홀트 가문의 조상은 16세기 말 유럽으로 이주했던 페르시아계 유대인이다. 작가가 연결 지은 가족사와 페르시아안 미니어처 간에는 뚜렷한 역사적 연결고리는 없다. 그러나 안홀트는 작가 특유의 직관력을 발휘했다. 페르시아안 미니어처는 몽골의 정복 전쟁 시기 중국으로부터 전파되어 13세기에는 페르시아의 주요한 회화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후 터키의 오스만 제국의 삽화 장르에도 영향을 끼쳤다. 안홀트 가문이 수 세기에 걸쳐 서쪽으로 이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안 미니어처 또한 중국에서 출발해 서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터키에까지 전파된 것이다. 페르시아안 미니어처가 거쳐온 이주의 역사는 유럽 내에서도 이주를 거듭했던 유대계 가족이었던 안홀트 가족의 역사와도 닮아 있다.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톰 안홀트 작업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기독교에 뿌리를 둔 서구의 문화와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서아시아 문화를 한 화면에 조화시킨다는 것이다. 어쩌면 금기에 가까운 이 이질적인 시도는 작가가 바라는 바와 같이 문제적이다. 유럽과 서아시아는 오랜 갈등의 역사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식민주의와 후기 식민주의 담론이 펼쳐지는 주요 무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홀트의 캔버스는 충돌이나 반목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작가는 이 둘을 한 화면에 자연스럽게 조화시킨다. 특히 안홀트의 캔버스에서 자주 보이는 기하학적 도형 및 패턴은 큐비즘과 페르시안 미니어처 모두의 영향이다. 이는 안홀트의 작업이 추상적이면서도 구상적이고, 표현주의적이면서도 초현실적으로 보이게 한다.

톰 안홀트 개인에게는 이처럼 양쪽의 문화적 유산을 자신의 작업세계에 끌어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체성의 표현이다. 안홀트는 '제약이 곧 창조'라는 피카소의 말을 즐겨 인용하면서도 작가에게 금기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작가는 작업이 두려움과 열망, 그리고 자신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공을 쫓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 과정은 마치 삶에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고 또 사라지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3. 작가소개

톰 안홀트는 1987년 영국 바스에서 아일랜드계 어머니와 어린이 책 번역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아스널 FC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는 그는 14세 때 테이트 브리튼에서 열린 막스 베크만의 개인전을 본 뒤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매일 그림을 그렸다. 그는 첼시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뒤 베를린에 정착했다. 이곳에서 작년에 딸을 얻었다. 작가는 딸을 얻은 뒤 자신의 주변을 다시 한 번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톰 안홀트의 작업은 형식상으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학 간의 연결고리로 인해 그 이전 시기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모든 역사와 일상을 작업의 원천으로 삼는 안홀트는 특히 큐비즘과 페르시안 미니어처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또, 영화 편집과 마찬가지로 여러 컷과 zoom된 화면들을 한 캔버스 안에 구성함으로써 내러티브를 만드는 등 동시대적 시각 경험을 구현하기도 한다.

톰 안홀트는 지난해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열린 단체전 《알려진/알려지지 않은 (Known/ Unknown)》에 참여해 주목받는 동시대 젊은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쿤스트페어라인 울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베를린에서는 갤러리 아이겐+아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뉴욕에서는 프리즈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다. 현재 베를린에서 작업하며, 런던의 사치 컬렉션을 비롯해 다수의 주요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4. 주요작품

*작품이미지 사용 시 각 작가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바다 이미지, 2019, 판넬에 유채, 60x50cm

© Tom Anholt and courtesy of Galerie EIGEN + ART
Leipzig/Berlin

툼 안홀트는 이 작품에서 색채를 제한함으로써 여러 화면이 중첩된 캔버스의 구도를 안정적으로 이끈다. 안홀트는 색조를 이용해 작품의 시리즈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검은색과 흰색, 회색, 그리고 갈색만을 사용해 전체 구도를 한 화면으로 묶었다.



지나가는 배들, 2019, 판넬에 유채, 50x60cm

© Tom Anholt and courtesy of Galerie EIGEN + ART
Leipzig/Berlin

안홀트는 작가로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영감을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서아시아의 삽화 장르 페르시안 미니어처를 작업세계로 끌어들인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안홀트는 추상적이고 장식적인 패턴과 화면 속 여러 칸을 넘나드는 인물들을 그렸다. 안홀트는 이러한 인물들의 시선을 이용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작품 깊숙한 곳으로 유도한다.

Hakgojae

Cheongda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1, B1 (청담동 109-20)

B1, 41, Dosan-daero 89-gil, Gangnam-gu, Seoul, 06012,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이미지와 전시 서문 인용 시 각 작가와 저자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오디션, 2018, 린넨에 유채, 35x25cm

© Tom Anholt and courtesy of Galerie EIGEN + ART
Leipzig/Berlin

이 작품에서는 근경 인물의 시선으로 인해 관람객의 시선이 점차 화면 안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먼저, 가장 왼쪽의 인물을 통해 가운데 인물을 보게 되고, 그의 시선을 통해 무대와 그 위에 서 있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물의 뒷모습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얼굴이 드러나 있지 않은 인물의 뒷모습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게 되고, 작품 속의 내러티브에 대해 저마다의 상상을 덧붙이게 된다.



새로운 지평, 2018, 판넬에 유채, 60x50cm

© Tom Anholt and courtesy of Galerie EIGEN + ART
Leipzig/Berlin

이 작품에 표현된 인물들의 시선도 <오디션>과 마찬가지로 관람객을 화면 안쪽으로 이끈다. 그러나 작가는 여기에서 영화 편집과도 같은 방식을 회화에 적용함으로써 화면을 보다 역동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작품 속 공간은 분절되어 있으며, 작품 속 세 인물은 각기 다른 시점으로 그려진 공간 속에 놓여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마치 카메라가 움직여 근경과 원경, 그리고 클로즈업을 잡은 것과 같은 시각 경험을 하게 된다.

5. 전시 서문

*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툼 안홀트

갤러리 아이겐 + 아트 (Galerie EIGEN + ART)

툼 안홀트의 작업은 어떤 잠재적 전이를 중심으로 한다. 안홀트는 엄격함이나 선부른 결론을 거부한다. 그의 회화는 도입부 혹은 어떤 중립적 공간으로 보여진다. 그 공간들은 구체와 추상 사이에 균형을 잡고 서 있다. 그의 회화를 주의 깊게 관찰한 사람은 그 흔적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안홀트의 대부분의 작품은 여러 번 다시 그려졌다. 그의 작업에는 어딘가 공통점이 있다. 작가는 작업을 통해 제작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이야기, 나아가 역사를 말한다.

안홀트의 작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묘사한 듯한 신비한 곡선이나 동화 속에 등장할 법한 별의 무리처럼 보이는 작고 빛나는 점이 보인다. 이러한 작업들은 분명 현실과 환상의 사이에 놓여 있다. 안홀트의 작업은 관람객의 의식을 특정 상태에 빠뜨린다. 그 상태란 의식이 소위 "진정한 현실"에 몰입할 때 각성하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반면, 또다른 현실성을 가진 우리의 꿈의 비전은 끈질기게 침투하며 어떠한 우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이나 꿈과 달리, 안홀트의 회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관람객으로 하여금 작가의 세계로 온전히 실어 나르는 경험을 허락한다.

6. 작가 이력

- 1987 영국 바스 출생
- 2007 팰머스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 수료
- 2009 콘스트팍 · 예술 공예 디자인 대학교
- 2010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 순수미술학과 졸업
-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업

주요 개인전

- 2019** **학교재청담, 서울**
삶으로부터, 갤러리 아이겐+아트, 라이프치히, 독일
- 2018 *타임머신*, 쿤스트 페어라인 올름, 올름, 독일
아비뇽의 여인들, 프리즈 뉴욕, 조쉬 릴리 기획, 뉴욕
진짜 이야기, 조쉬 릴리, 런던
- 2017 *식스티*,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뉴 워크, 뉴 York, 1969갤러리, 뉴욕
- 2016 *인사이드 아웃*, 아이겐+아트 랩, 베를린
불타 NY, 피어 90, 뉴욕
고대의 게임, 프로젝트B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 2015 *히스토리 보이*, 아이겐+아트 랩, 베를린
- 2014 *베비 스트랜드*,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스튜디오 하우스, 코펜하겐
레인보우 워크,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 2013 *사람이 만든*,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베를린

주요 단체전

- 2019 *툼 안홀트/크리스 해머라인*, 데릭 엘러 갤러리, 뉴욕
- 2018 *베를린 쿨링. 작업과 종이*, 갤러리 코른펠트, 베를린
알려진/알려지지않은, 사치 갤러리, 런던
종이 작업,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 2017 *부역의 새 싱크대*, 조쉬 릴리, 런던

-
- 그렌저-파롱겐, 갤러리 루시 클레너, 베를린
- 2016 *모두 함께 지금*, 1969 갤러리, 뉴욕
- 종이*, 68 프로젝트, 베를린
- 2015 *당신은 내게 꽃을 주지 않잖아요*, 갤러리 콘펠드, 베를린
- 섬사람들*,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 2014 *사람, 장소 또는 사물*, 갤러리 콘펠드, 베를린
- 종이 작품과 조각품*,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베를린
- 드로잉들과 에칭*, 갤러리 콘펠드, 베를린
- 2013 *이런 날들- 톰 안홀트와 데이비드 모세*, 갤러리 루시 클레너, 베를린
- 각각 하나씩*, 갤러리 루시 클레너, 베를린
- 모든 물*,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 자화상*, 폴레르스타 고르, 스톡홀름
- 자유*, 프라이에스 뮤지엄, 베를린
- 2012 *빌드스툼*,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 리지 파인 아트*, 아티스트 쇼케이스, 런던
- 모든 물*,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베를린
- 세상들*, 갤러리 아데스, 베를린

주요 소장

- 사치 컬렉션, 런던
- 컬렉션 알레산드로 베네통, 트레비소, 이탈리아
- 컬렉션 마리오 테스티노, 런던
- 컬렉션 미티넨, 독일 및 핀란드
- 덴마크 서지센터, 코펜하겐
- 수잔과 마이클 홀트, 뉴욕
- 캐롤 서버와 올리버 프랭클, 뉴욕
- 올레 파럽, 프레더릭스보르그, 덴마크
- 만프레드 헤르만, 베를린
- 제라드 로페즈, 룩셈부르크